

## 암 환자의 요양기관 이동 현황

### 1. 분석 배경

- 암은 사회·경제적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음
- 지방소재 암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지역 암센터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음
- 본 고에서는 암 환자의 요양기관 이동현황을 암별로 구분하여 분석함

### 2. 분석 방법과 내용

- **대 상** : 2011년 암 진료를 받은 환자(2010년 암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제외)
- **자료원** : 2010년~2016년 건강보험 청구자료
- **분석 방법**
  - ▶ 2012년 암(C코드)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요양기관 이동을 추적

### 3. 분석결과

- 2011년 암 환자 중 과거 1년간(2010년)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는 254,334명이며, 갑상선 암(C73) 환자가 43,891(17.3%)명으로 가장 많음
  - ▶ 환자 절반(48%)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, 질환별로 차이가 있음
  - ▶ 환자의 절반(48%)은 종합병원을 이용하였고, 첫 진료기관의 종별이 질환별로 차이가 있음

[표 1] 다빈도 암 상위 10순위(201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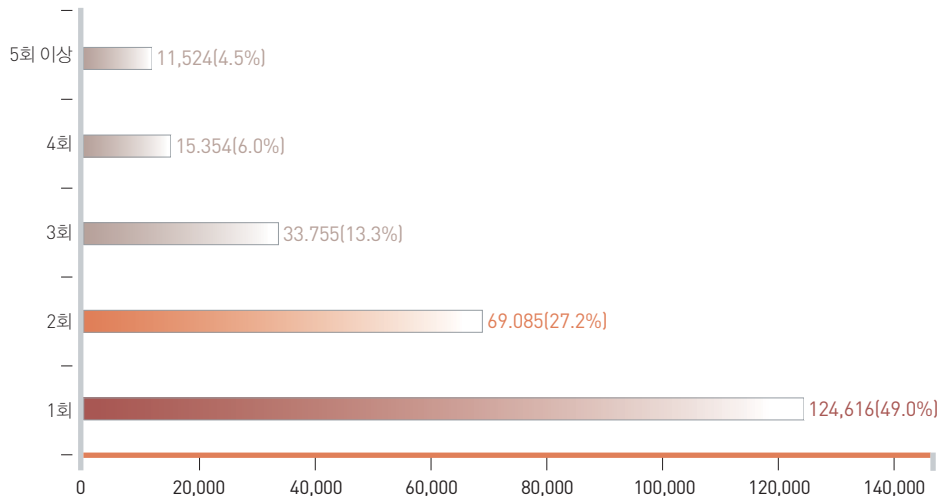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, %)

순위	코드	질환	진료인원(비중)	첫 진료기관 종별 비중			
				상급	종합	병원	의원
		합 계	254,334 [100.0%]	48.0%	32.9%	5.5%	13.5%
1	C73	갑상선의 악성 신생물	43,891 [17.3%]	50.0%	30.6%	4.1%	15.4%
2	C16	위의 악성 신생물	35,648 [14.0%]	48.4%	34.0%	5.9%	11.6%
3	C34	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	21,551 [8.5%]	45.7%	36.6%	5.3%	12.4%
4	C50	유방의 악성 신생물	20,417 [8.0%]	46.6%	33.1%	6.6%	13.6%
5	C18	결장의 악성 신생물	19,905 [7.8%]	37.5%	33.6%	9.6%	19.3%
6	C22	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	18,139 [7.1%]	48.6%	33.4%	4.5%	13.5%
7	C61	전립선의 악성 신생물	10,919 [4.3%]	48.2%	36.0%	2.0%	13.8%
8	C20	직장의 악성 신생물	10,738 [4.2%]	40.5%	32.4%	13.9%	13.2%
9	C53	자궁 경부의 악성 신생물	5,918 [2.3%]	50.3%	38.3%	4.2%	7.2%
10	C67	방광의 악성 신생물	5,751 [2.3%]	49.4%	39.6%	2.6%	8.4%

- 암 환자들이 5년간 요양기관을 이동한 횟수는 평균 1.94회이며, 가장 많이 이동한 질환은 췌장암으로 평균 2.2회 이동함
  - ▶ 암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, 진단검사, 수술, 항암치료, 방사선 치료 과정을 거침
  - ▶ 이동횟수가 높은 질환은 주로 소화기관의 암(C15~C26)임

[그림 1] 이동횟수 당 환자수(5년간)

(단위: 명, %)



[표 2] 암 질환별 환자의 이동횟수(5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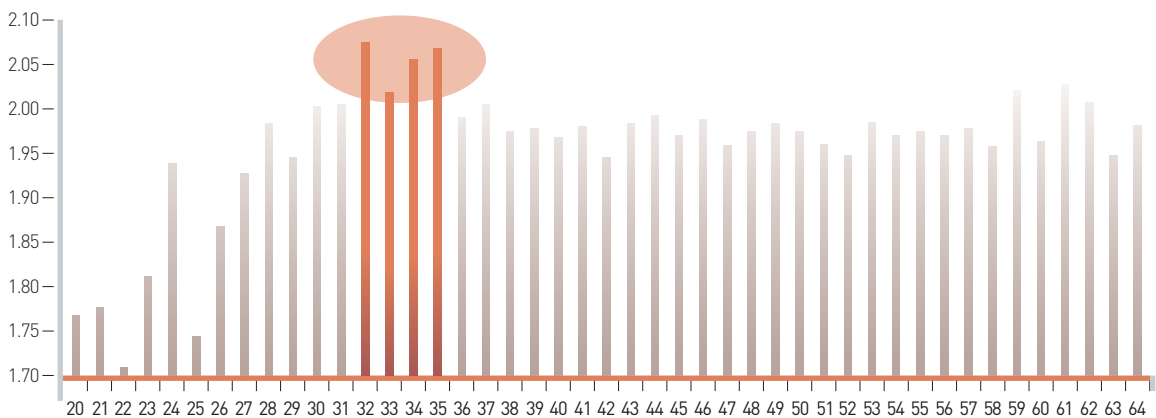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, %)

순위	코드	질환별	진료인원	평균	중위수
			254,334	1.94	2
1	C25	췌장이자의 악성 신생물	5,655	2.19	2
2	C50	유방의 악성 신생물	20,417	2.14	2
3	C24	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	2,760	2.14	2
4	C22	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	18,139	2.12	2
5	C34	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	21,551	2.04	2
6	C23	담낭의 악성 신생물	2,232	2.03	2
7	C20	직장의 악성 신생물	10,738	2.03	2
8	C19	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	2,124	2.02	2
9	C16	위의 악성 신생물	35,648	1.94	2
10	C73	갑상선의 악성 신생물	43,891	1.92	2

- 2011년 진료받은 환자 중에서 30대 초반 환자의 요양기관 이동횟수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60대 초반 환자임

[그림 2] 연령별 요양기관 평균 이동횟수(5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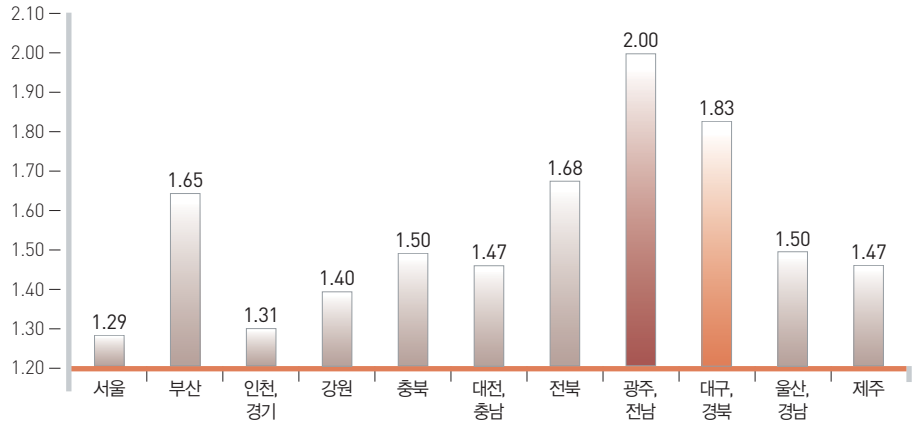
(단위: 회)



- 첫 진료기관의 소재지가 광주, 전남지역인 환자들의 이동횟수가 2.0회로 가장 높았고, 가장 적게 이동한 지역은 서울(1.29회) 임

[그림 3] 첫 진료기관의 소재지별 요양기관 평균 이동횟수(5년간)

(단위: 명, %)



#### 4. 결론

- 2011년 암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5년간 추적한 결과, 평균 2개의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, 환자 특성(질환, 연령)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
- 암 질환에 따라 요양기관 이동횟수의 차이가 있으며, 소화기관의 암이 다른 질환에 비해 이동횟수가 많은 편임
- 암 진료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, 첫 진료를 비수도권에서 받은 경우 이동횟수가 많음

